지역 극단 '전위무대(前衛舞臺)' 연구

-'1963년에서 1978년까지 공연사'를 중심으로-

박경선*

〈차례〉

1. 연구목적
2. 1960・1970년대 부산연극의 현황
   1) 1960년대 부산연극의 현황
   2) 1970년대 부산연극의 현황
3. 전위무대의 성립과 극단 목표
4. 전위무대의 공연사
   1) 제1기: 연극을 향한 힘찬 출발
   2) 제2기: 소극장 69를 통한 전진
   3) 제3기: 새로운 각오로 도약
5. 전위무대의 연극사적 의의

<국문초록>

1963년에 창단된 '전위무대'는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이다. 창단 당시 부산의 연극 상황은 연극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없고, 연극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위무대 구성원들은 연극다운 연극을 하자는 각오로 극단을 창단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1963년부터 1978년까지의 전위무대 공연사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위무대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한 시기와 부산의 연극인들이 모여 활동한 '소극장 69'시기 그리고 시민회관의 개관과 더불어 다시 전위무대의 이름으로 공연을 한 시기이다. 소극장 69는 부산의 연극인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전위무대가 소극장 69의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60년대 창단된 대부분의 극단들이 1회에서 3회 정도의 공연으로 해체되었지만, 전위무대는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1975년 부산극단 최초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공연하였다. 그리고 부산에서 공연되지 않았던 작품을 초연하였으며, 자체번역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원형 무대에서 공연함으로써 무대의 변화를 주기도 하였고,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연극적 시도를 한 전위무대는 부산 연극 발전의 중심에 있는 극단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위무대, 소극장 69, 부산 연극, 1960년대,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

* 부경대학교 강사

1. 연구목적

'전위무대'는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이다. 1963년 창단[1]된 전위무대는 그 해 7월 6일에 이만석 작 <목소리>의 합동 공연에 참여하였으며, 1964년 7월 차범석 작 <불모지>로 부일 프레스홀[2]에서 창단 기념 공연을 가졌다. 전위무대는 1963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1960년대 말 침체된 부산 연극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임인 '소극장 69'의 주축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에서 주관하는 합동공연에 다수 참여하였고, 2010년 8월까지 94회 정기공연을 시행한 바 있다.

전위무대의 공연 목록을 살펴보면, 주로 창립부터 1978년까지는 채동

1) 김동규는『부산연극사』에서 전위무대의 창립시기를 1964년 7월이라고 말한다. 창단 기념공연이 1964년 7월에 있었지만, 1963년 7월의 합동공연에 전위무대가 참여한 것으로 보아 창립시기를 196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위무대의 창단에 관해 전성환(본인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고 함)은 박광웅, 채동근과 뜻을 모아 1963년 7월에 정식 창단을 하였다고 한다(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1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2) 부일 프레스홀은 부산시 중구 중앙동 옛 부산일보 사옥에 있었던 소극장으로, 연극 공연장으로서의 소극장이라기보다는 결혼 예식장에 가까운 소극장으로 1963년부터 시민회관 소극장이 문을 연 1973년까지 10여 년 간 지속된 소극장이었다. 전위무대는 창단기념공연부터 3회 정기공연까지 부일 프레스홀에서 공연하였다(김문홍,「부산지역 소극장 연극사」,『부산연극사-소극장사 1963~2009』, 도서출판 해성, 2009, 30면 참조). 부일 프레스홀은 60평 남짓한 자리를 길이로 옆을 막아 예식장 대기실을 겸한 다방이었다. 공연 때면 이 대기실에서 분장을 마치고 다방 주방으로 통하는 쪽문으로 기어들어가야만 무대 뒤로 갈 수 있었고 무대 반대편에는 반 2층으로 신랑 신부 대기실이 만들어져 있어 조명 조작을 이곳에서 할 수 있었다(전성환,「시대에 따른 우리연극의 흐름」,『백경』22권, 수산대학교, 1983, 150면).

www.kci.go.kr

근과 허영길이 연출을 맡았고,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전성환과 전승환이 연출을 맡았으며, 1991년 이후 현재까지는 전승환이 연출을 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출가는 대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다른 모든 연극 예술가들의 노력들을 하나의 통일된 공연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3] 따라서 연출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공연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출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위무대 공연사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창단 무렵부터 1978년까지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이며, 세 번째 단계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를 각각 1~3단계로 칭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본고에서 다룰 분야는 전위무대 1단계 공연사이다.

전술한 대로 1단계의 연출자는 주로 채동근과 허영길이다. 채동근은 전위무대의 창단 멤버이며 창단 기념 공연부터 5회 정기공연까지 연출을 맡았지만, 그 이후 영화 작업을 하기 위해 전위무대를 떠난다. 허영길은 1965년 전위무대에 입단하여 연출 작업을 하였으며, 1978년 극단 '레퍼토리시스템'를 창단하여 전위무대에서 독립한다. 본고에서는 1단계의 전위무대 공연사, 즉 전위무대 창단부터 허영길이 극단 레퍼토리시스템을 창단하여 전위무대를 떠난 시기인 1978년까지 전위무대 활동 내역과 공연사를 고찰할 것이다.

1963년부터 1978년까지의 전위무대 활동 시기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1~3기로 지칭할 수 있다. 제1기는 전위무대의 이름으로 활동한 시기이다. 제2기는 침체된 부산연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극인들이 모여 '소극장 69'로 활동한 시기이다. 제3기는 전위무대의 이름으로 복귀하여 활동한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소극장 69를 전위무대의 공연사의 일부로 취급하고자 한

3) Oscar G. Brockett, 김윤철 역, 『연극개론』, HS MEDIA, 2009, 615면.

다. 비록 소극장 69에 부산지역 연극인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활동하였지만, 그 주축 세력은 전위무대였고,[4] 전위무대 스스로 소극장 69가 자신들의 또 다른 활동 단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5] 명실상부 당시 부산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전위무대가 활동 반경을 확장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위무대에 대한 연구는 극히 희소했다. 1960년대부터 부산에서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위무대에 대한 연구는 부산연극사를 거론하는 입장에서만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전위무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 가장 문제적인 것은 전위무대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지역극단이라는 사실에 있다. 아직까지 한국연극계가 중앙 집중적인 인식에 머물고 있고 한정된 연구 영역으로 인해[6] 지역 연극에 대한 편향적인 해석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향적인 해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전위무대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국 연극사에 있어서 중요한 극단임은 분명하므로, 전위무대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중앙에 치우쳐져 있는 극단사 연구의 균형을 바로잡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4) 허은 • 김문홍, 「부산연극사」, 한국연극협회, 『지역연극사 한국현대연극 100년』, 연극과 인간, 2008, 379면.

5) 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1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6)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서울에 위치한 극단이 주로 연구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성희, 「국립극단 연구(1)-창단부터 명동국립극장 시대까지」, 『한국극예술연구』(12권), 한국극예술학회, 2000.
한은주, '동랑 레퍼터리 극단' 연구: 197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0.
서영석, 극단 에저또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신기, 「'서울시 극단' 10년 연구: 공연 활동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
한재우, 「극단 연우무대 공연 연구: 창단 이후 1990년대 까지」,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0.

www.kci.go.kr

2. 1960·1970년대 부산연극의 현황

1) 1960년대 부산연극의 현황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까지 부산연극의 맥을 이어온 것은 전문 연극인들이 아니라 학생들이었다. 당시 부산에서는 직업적인 연극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동래중학의 연극부와 부산대 연극부의 활동이 부산연극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7]

전쟁 중에는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극단들의 공연으로 인해 부산연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 시기에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극단은 신협이다. 신협은 1952년 3월과 8월, 11월에 부산극장, 동아극장, 중앙극장, 시민관 등지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다.[8] 1954년에 들어서 중학교 연극부와 대학 연극부의 힘을 합친 최초의 순수극단 청문극회와 동아대학을 주축으로 하는 예술소극장이 구성된다.[9] 이들 극단이 구성된 시기를 전문연극으로서 부산연극의 시작으로 본다. 그러나 극단은 구성되었지만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청문극회가 3회 공연을, 예술소극장이 1회 공연을 끝으로 무대를 올리지 못하였다.[10] 비록 많은 공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청문극회가 이주홍의 작품을 공연함으로써 향토(지역) 작가의 작품으로 부산연극의 명맥을 이어왔다[11]고 할 수 있다.

부산연극에서 현대 연극이 정착되기 시작한 시대는 1960년대이다.[12]

7) 김동규, 『부산연극사』, 예니, 1997, 39면 참조.
8) 전성환, 앞의 글, 146면,
9) 김동규, 앞의 책, 49~51면 참조.
10) 청문극회는 3회 공연 이후에도 공연활동을 전개했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예술소극장은 2회 공연을 대대적으로 예고하였지만 2회 공연을 상연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없다(김동규, 앞의 책, 50~51면 참조).
11) 전성환, 앞의 글, 147면,
12) 위의 글, 148면.

1960년에는 잇달아 유수한 전문극단들이 속속 등장해서 적막한 연극계를 풍요롭게 했다.[13] 부산에서도 1960년대에 많은 극단들이 창단[14]되었다.

13) 유민영, 『한국연극운동사』, 태학사, 2001, 412면.
14) 김동규, 앞의 책, 69~82면 참조.

창립일	극단명	대표	공연 회수	공연 날짜	공연작품
1963.3	샛불극회	서국영	1	1963.3.26	하유상 작, 젊은 세대의 백서
1963.6	계절극회	차재원	2	1963.6.20	M. 랭거 작, 제한된 시간
				1965.7	강하영 작, 영풍
1963.12	부산극단	박두석	2	1964.9.16~17	사르트르 작, 거룩한 창부 엘리어트 작, 칵텔 파티
				1964.12.3~4	A. 클.슬.작, 그리고 아무도 없어졌다
1964.6	입체극장	이덕선	3	1964.6	체홉 작, 담배의 해독 꼭도 작, 목소리
				1964.7	오닐 작, 동으로 카디프를 향하여
				1964.12	김관봉 작, 밤 12시 이주홍 작, 연이야 울지마
1964.7	전위무대	박광웅	5		본문에서 다룰 것임.
1964	아카데미·쌍스	허광길	1	1964.12	허광길 작, 미완성 이후
1964	동양극단	장고웅	2	1964	하유상 작, 회색의 크리스마스
				1964	문기태 작, 카페로의 초대
1964.11	부산예술학원	이태헌	1	1964	서국영 작, 오솔길
1965.3	범아선	배운철	1	1965	A. 듀마 작, 몸부림치는 여인
1965.5	시민극단	서국영	3	1965.5	유치진 작, 별
				1965.10	구상 작, 수치
				1966.4	유치진 작, 마의 태자
1965.11	재부동국대 연극동인회	한수철	2		1회 공연에 대한 기록이 없음
				1965.11	오영수 작, 좌석 없는 극락 열차
1965.12	소극장동인	이정길	3	1965.11	송숙영 작, 달빛을 살해하라 잘못 걸렸읍니다
				1965.12	J. 패트릭 작, 사랑은 죽음과 함께
				1966.6	박조열 작, 토끼와 포수
1966.4	중대연극과 OB	김동규	1	1966	비트링거 작, 은하수를 아시나요?
1966.12	소극장 66	배영조	1	1966.12.1~3	김성한 작, 바비도 김승옥 작, 서울 1964년 겨울
1967.7	새벌극회	김영송	1	1967.10	임희재 작, 꽃잎을 먹고 사는

www.kci.go.kr

전위무대 역시 1960년대에 창단된 극단이다. 1960년대 초 부산에서 창단된 대표적인 극단은 샛불극회, 계절극회, 부산극단, 입체극장, 전위무대이다. 샛불극회는 부산연극협회 직속극단이었으며, 계절극회는 KBS 성우들이, 부산극단은 부산대학 출신들이, 입체극장은 MBC 성우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극단이다. 그러나 전위무대는 특정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창단한 극단은 아니라,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한 극단이다.

1960년대 부산연극은 연극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부산에는 무대 연출만을 전공으로 한 연출자가 없고, 연기자마저 방송국 성우나 대학생들 외에는 없는 상황이어서 연극다운 연극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15] 그래서인지 1960년대의 부산 연극계의 현황은 많은 극단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극단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극단에서 공연하고 다시 다른 극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몰려다닌 현상에 불과하다[16]고 평가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말이 되면 부산의 극단은 오랜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부산연극의 명맥은 소극장 69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17]

1960년대 부산 극단의 공연현황을 아래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

> 63년에는 시내 각 대학생과 교사들로 '입체극장', KBS 성우들의 '계절극회', 학생들의 '전위무대' 등이 다투어 발족, 부산 연극계의 황금기를 맞은 듯도 했다. 그러나 '전위무대'를 빼고는 이 소극장들은 모두 4회 공연 끝에 기진맥진해 버렸고 68년 발족한 '원형극장'은 창립 공연도 못한 채 해산되었다. 그 중 '전위무대'가 6회 공연을 기록한 것이 최고였다.[18]

					기관차
1968.1	원형극장	김춘방	0		창립공연을 갖지 못함.
1968.8	형상극장	이종석	2	1968	오혜령 작, 인간적인 진실로 인간적인
				1969	무지개 쓰러지다
1969.9	소극장 69	김영송	12		본문에서 다룰 것임.
1970.9	드라마센터 부산극회	천재동	3	1970.9.18	G. 휴즈 작, 붉은 카네이션
				1970.10	점을 칩니다
				1970.12	위협

15) 『부산일보』, 1965년 9월 4일, 5면.
16) 김동규, 앞의 책, 86면.
17) 『부산일보』, 1970년 1월 31일, 5면.

1960년대에 부산에서 창단된 많은 극단들은 지속적인 공연을 하지 못하고 와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타 극단의 공연 실적을 보면, 샛불극회가 1회 공연을, 계절극회가 2회 공연을, 부산극단이 2회 공연을, 그리고 입체극장이 3회 공연을 하였다. 많은 극단 중에서 공연회수가 가장 많은 극단은 전위무대이다. 기사에는 전위무대가 6회 공연을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전위무대의 자체 공연은 5회이다. 아마 기사를 쓴 기자의 착각으로 인해 6회 공연을 하였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공연 회수가 5회냐, 6회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극을 할 수 있는 공연장 하나 갖추지 못한 부산에서 타 극단들이 1, 2회 공연을 하고 와해될 때, 전위무대는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 1970년대 부산연극의 현황

1970년대는 부산연극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1973년 문예진흥원이 발족하고, 부산시민회관의 개관으로 동인제 극단이 활기를 띄기 시작한다.[19]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1970년대 역시 많은 극단들이 창단되었고[20] 1960년대 창단한 후 공연을 하지 않았던 원형극장이

18) 『부산일보』, 1969년 9월 25일, 5면.
19) 김동규, 앞의 책, 88면.
20) 위의 책, 69, 94면.

창립일	극단명	대표	창립일	극단명	대표
1973.3	극단 한새벌	주용욱	1976.12	극단 상황	이수용
1973.8	예술동호회 딜레땅뜨	이윤택	1977.10	극단 장터	라사랑
1974.2	극단 원형극장	김동규	1978.3	극단 마당	이성규

www.kci.go.kr

1974년 창립공연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극단의 창단이 활발한 공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성극단들은 이름만 있을 뿐 무대를 통한 활동이 없었다.

1970년대 초의 부산연극은 여전히 공연장소의 부족과 전문 연출가의 부족 그리고 배우의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73년 시민회관이 개관되고 75년 부산 최초의 연극 전용소극장 까페 떼아뜨르가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부산연극의 무대는 부족하였다. 시민회관은 사용료가 비쌌으며[21] 까페 떼아뜨르는 재부극단의 공연보다는 서울의 기성극단의 공연을 주로 하였다. 개관 기념공연으로 서울 자유극장의 <타이피스트>를 초청한 이후 1986년 5월까지 약 10년간 53회의 특별 초청공연을 갖지만 재부극단의 공연은 단 4회뿐이었다.[22]

서울극단들의 부산공연이 잦았던 이유 중 하나는 문예진흥기금의 편중된 지급에 있었다. 문예진흥기금의 집중적인 서울 지급은 중앙의 예술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지방예술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극에 할당된 예산도 거의 서울극단에 지급되었다.

> 문예진흥기금 중 연극에 할당된 예산은 여전히 거의 모두가 서울에 있는 극단에 지원되고 있고 이들 서울의 극단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대거 부산이나 지방으로 진출, 흥행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중략…) 75년 이후 지금까지 극장무대와 살롱무대를 합쳐 20여회의 서울 극단들이 부산서 공연을 했고 거의가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중략…) 서울의 극단들이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부산공연을 할 때 부산 극단은 단원 한 사람이 3만~5만원의 돈을 6개월 이상 모아 한 번의 공연을 열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23]

1974.3	극단 현장	김배호	1978.5	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신태범
1974.11	극단 새누리	송성묵	1978.9	무언극(묵극)	조종두
1975.11	극단 독립무대	설 령			

21) 1981년 공연법 개정으로 재부극단에 대해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김동규, 앞의 책, 114면 참조).
22) 위의 책, 113면.

서울극단의 부산공연으로 부산 시민들은 다양한 무대를 관람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부산연극은 관객의 부족현상을 겪게 된다. 예산이 부족한 부산극단들이 자립하기도 전에 지원금을 받은 서울극단의 잦은 부산공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극단의 부산공연은 부산연극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들어 공연장소의 부족과 전문 연극인의 부족 속에서도 부산연극의 변화가 시작된다. 부산연극계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는 1976년이다. 공연 작품도 많아졌고 연극을 찾는 관객의 수 또한 증가하였다.

> 77년은 부산 연극계가 「69 소극장운동」 이래 최대의 관객 동원, 최대의 공연회수를 기록했던 한해였다. (…중략…) 「전위무대」의 송년공연 <알고 난 후의 충격>을 포함, 올 한 해 동안 총 25회의 연극공연이 있었다. (…중략…) 창작극인 <맹진사댁 경사>를 무대에 올린 극단 「전위무대」의 경우 32명이란 많은 캐스트를 동원, 대극장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미숙한 연기자를 무리하게 등장시켰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획기적인 일이었다. (…중략…)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올해의 「전위무대」, 「한새벌」이 문예진흥기금을 각각 40만원씩 받았듯이 부산극단들은 의욕적으로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24]

1976년 이후 1977년, 1978년 해가 갈수록 전년도에 비해 전체 공연수가 증가하였고, 부산극단에 의한 공연도 늘었다. 특히 1978년은 부산극단에 의한 공연이 전체 공연수의 50%를 넘어, 그동안 서울극단들의 원정 공연

23) 『부산일보』, 1977년 1월 29일, 5면.
24) 『부산일보』, 1977년 12월 19일, 5면.

www.kci.go.kr

으로 열세에 몰려 있던 부산극단들이 공연 편수 면에서 부산연극의 주인 행세를 하였다.[25]

1976년이 변화가 시작된 시기라면, 1977년은 부산 연극계가 활기찬 새로운 출범을 위해 뿌리를 내렸던 중요한 해로 평가된다. 공연회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관객이 수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부산극단의 공연뿐만 아니라 부산의 연극풍토가 성숙한 것에서 찾고 있다.[26] 하지만 연극풍토의 성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연극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연극풍토가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극단들의 부산공연도 연극풍토 조성에 일조를 하였겠지만 부산극단들의 연극에 대한 열정이 모여 성숙한 연극풍토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전위무대가 있었다. 부산의 극단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전위무대는 꾸준히 활동을 계속해 왔다. 전위무대의 1970년대 활동은 '부산 연극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극단은 「전위」, 「원형」, 「현장」 등이며 새로이 「독립극단」이 태동의 기미를 보이고 있[27]으며, 부산에서 제대로 정기공연을 하는 것은 극단 「전위(무대)」뿐 모두 유명무실하며,[28] 부산연극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온 극단 「전위무대」에서 <알고 난 뒤의 충격>을 자체번역, 원형무대를 시도하고 또 <벽>을 공연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요소를 남겨두고 있다'[29]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부산연극의 명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극단이 전위무대이다. 기성극단들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전위무대는 꾸준히 무대를 통해

25) 1978년 부산에서 공연된 연극은 31편이었으며, 그 중 부산극단이 16편을 무대에 올렸다(『부산일보』, 1978년 12월 26일 5면).
26) 『부산일보』, 1978년 12월 26일, 5면.
27) 『부산일보』, 1976년 1월 7일, 5면.
28) 『부산일보』, 1976년 9월 25일, 5면.
29) 『부산일보』, 1976년 12월 17일, 5면.

관객들과 만남을 가졌다. 때로는 무대가 미흡하게 꾸려지기도 하였지만 자체 번역을 한 새로운 작품을 공연하기도 하고, 원형무대에서 공연을 하여 무대의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연극적 시도를 하며 부산연극의 맥을 이어왔다.

3. 전위무대의 성립과 극단 목표

전위무대 창립 발의자는 박광웅이며, 이에 채동근과 전성환 등이 뜻을 모으면서 전위무대가 출범했다. 그들은 진짜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극을 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하였고, 그 결과 전위무대가 탄생하였다.[30] 이들은 1963년 3월 2일 부일 프레스홀에서 창단 총회를 가지고, 대표 박광웅(당시 부산일보 편집부에 근무), 총무 전근섭, 운영위원 채동근, 전성환, 장고웅, 김상진, 김규상, 권의웅으로 극단을 구성하였다.

전위무대는 창단 이후 현재까지 대표를 3번 바꾸었다. 박광웅 대표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대표를 맡을 수가 없게 되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성환 대표 체제로 바꾼다. 1967년 1월 22일 남포동 청탑 그릴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 전성환, 총무 김상진, 운영위원 전근섭, 원경연, 전승환, 이군자, 허영길, 권의웅으로 하였다.

전성환 대표 체제는 다시 전승환 대표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전성환이 시립예술감독을 맡게 되면서 극단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96년 1월 4일 중앙동 극단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를 전승환으로 바꾸고, 부대표 서광석, 기획실장 곽병곤으로 하였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력질주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전승환 대표 체제로 이어오고 있다.

30) 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1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www.kci.go.kr

극단 이름 '전위'가 뜻하는 바는 '아방가르드'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는 의미, '앞서가자'는 의미이다.[31] 전위무대의 구성원은 창단 당시에 '보다 많은 관중과 더불어 함께 웃음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관객과 함께하는 연극을 지향하였으며, 연극을 향해 전진하자고 다짐하였다.

전위무대가 창단될 당시 부산의 연극 상황은,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없고 연극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극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극단 활동에 지출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단을 구성하고 꾸준히 공연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연극에 임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전위무대의 구성원들은 극단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연극이라는 무대를 지향하면서 연극예술을 앞장서서 발전시켜나가자는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이다.

4. 전위무대의 공연사

1) 제1기: 연극을 향한 힘찬 출발

전위무대는 차범석 작 <불모지>를 창단 기념공연작으로 선택하였다. 배우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호흡할 수 있는 리얼리즘 작품 중에서 우리 창작 작품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창단 기념공연작으로 <불모지>를 선택했다.[32] 채동근 연출로 김규상, 이군자, 김수연, 장고웅, 이희순, 권의웅 등이 배역으로 참여하였다. <불모지>는 전쟁 전후의 어둡고

31) 전승환과 인터뷰, 2010년 9월 14일, 전위무대 사무실 ; 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1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32) 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2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불안정한 사회상황을 한 가족의 생활 단면을 통해 집약적으로 드러낸 50년대의 대표적 사실주의 작품이다.[33]

창단 공연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쉽게 호흡할 수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였지만 공연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전위무대의 <불모지> 공연은 연극을 보고 다루는 자세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으며,[34] 현대의 한복판에 뚫어진 시대착오를 나타내기에는 작품분석이 부족하였다[35]는 평을 듣는다.

> 부산극계는 현대 연극이 나아가는 사조의 갈래보다도 연극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중략…) 작품을 하나 상연하기까지 각본의 분석과 이해, 그리고 자기 역에 대한 완전연소 등 뼈저린 진통이 아쉽다.[36]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을 올리는 것은 전위무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당시 부산 연극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부산 연극계가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전위무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여 극단을 출범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당시 부산의 환경은 연극 공연과 관련된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도 못한 상태였다.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보다 시작은 서툴지만 시작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전위무대는 무대를 향해 서툰 걸음을 내딛었지만 다음 무대를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제2회 정기공연 작품은 존 오스본 작 <성난 얼굴로 돌아보자>이다. 1965년 2월 27일 채동근 연출로 부일 프레스홀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진은

33) 서연호, 『한국연극사-근대편』, 연극과 인간, 2003, 208면.
34) 김종출, 「연극부활은 엘리트 속에서」, 『부산일보』, 1964년 7월 28일, 6면.
35) 김일구, 「막 올리기보다 참된 서클 활동」, 『부산일보』, 1964년 7월 28일, 6면.
36) 『부산일보』, 1965년 5월 1일, 5면.

www.kci.go.kr

전성환, 박영웅, 이군자, 박윤아, 권의웅이다. 제 3회 정기공연 작품은 R. 헨즈베리 작 <햇빛 속의 건포도>이다. 1965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채동근 연출로 부일 프레스홀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진은 전성환, 이군자, 김수연, 원경연, 조순미, 허영길이다. 제 4회 정기공연 작품은 W. 인지 작 <버스 스톱>이다. 채동근 연출로 1965년 12월 22일 11시, 2시, 5시, 8시 하루 4회 천보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진은 김성철, 방성진, 이군자, 백웅이다. 제5회 정기공연 작품은 공보부 신인예술상 참가작으로 안톤 체호프 작, <청혼>이다. 1966년 5월 3일 채동근 연출로 제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진은 박영운, 박윤아, 석윤이다.

5회까지의 공연을 보면 창단 공연작인 <불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작품이 외국작가의 작품이다. 당시 전위무대가 외국 작가의 작품을 공연한 이유를 전성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 당시 우리 창작 작품 좋은 것은 규모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이중생 선생이라든가 시집가는 날이라든가 얼마나 좋고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커요. 햇빛 속의 건포도, 버스 스톱,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는 규모가 크지 않고, 출연자 수가 많지 않고, 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대장치 변화 없고, 배우 5명 정도, 많아야 8명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어필되고 있는 작품을 찾다보니 그걸 찾을 수밖에 없었죠.[37]

전위무대가 외국작가의 작품을 선정한 것은 이들 작품이 규모가 크지 않고, 출연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60년대 부산에서 많은 극단들이 창단되었지만 공연을 지속한 극단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서 당시 부산의 연극 상황을 추측해 본다면, 당시 부산의 극단들은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위무대도 타 극단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37) 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2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그렇기 때문에 전위무대가 특별히 외국작가를 선호해서 작품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극단이 감당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다 보니 외국작가의 작품이 많이 선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전위무대는 부산의 극단 중 가장 행동의지의 통일성을 갖추고 실험적인 연극만을 시도하였다[38]는 평을 받는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합동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전위무대는 자체 공연 5회를 하였고, 합동 공연에 8회 참여하였다. 합동 공연은 3 • 1절이나 광복절에 행해졌고, 예총 안에 있는 열 개의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성격의 행사였다.[39]

합동 공연이 성행한 이유는 부산의 연극 풍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극단의 취약하여 단독 공연을 치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히 합동 공연이 이루어지곤 했다.[40] 그리고 부산연극협회 부산지부[41]가 협회 산하에 직속 극단 샛불극회를 두지만 직속단체 하나로 부산연극을 이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극단 수를 확대하게 되고 직속극단이 동인제극단으로 탈바꿈하면서 극단 수를 늘려 다극단주의를 채택하되 필요에 따라 합동 공연을 갖는 형식을 취한[42] 것이다.

이 시기에 전위무대가 참여한 합동 공연[43]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38) 『부산일보』, 1968년 3월 21일, 5면.
39) 김동규, 앞의 책, 84면.
40) 허은 • 김문홍, 앞의 책, 377면 참조.
41) 1962년 8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남지부가 결성되고, 이해 11월 제1회 경남예술제에 <귀향>이 여수중 연출로 출품되나 1963년 1월 1일부로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되자 2월에 한국예총 경남지부가 한국예총 부산직할시 지부로 개편되었다(김동규, 앞의 책, 56면).
42) 위의 책, 57면.
43) 1963년 공연한 <목소리>는 다른 합동공연과 성격이 다르다. 극단 창단 당시 군복무중이었던 전성환은 <목소리> 공연에 대해서 다방에서 살롱드라마 형식으로 공연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2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www.kci.go.kr

기간	공연 장소	작품명	작가	연출가	진용
1963.7.6	부일 프레스홀	목소리	이만석	설 령	이군자, 김동민
1965.6.27	부일 프레스홀	토끼와 포수	박조열	김동민	전성환, 이군자, 방선진 외
1965.9.18	부산극장	만선	천승제	설 령	전성환, 이형황, 방성진, 이군자 외
1966.3.16～18	제일극장	새우잡이	전세권	차재원	전성환, 김동민, 방성진, 이군자 외
1966.5～월	부산 고등, 대학 순회공연 경남, 마산, 진주 순회공연	토끼와 포수	박조열	김동민	전성환, 이군자, 방성진 외
1967.3.18～20	국제극장	정직한 사기한	오영진	한수철	전성환, 김동민, 방성진, 이군자
1968.3.20～21	천보극장	소매치기	김길호	김해오	전성환, 원경연, 이군자 외
1969.3.24～25	천보극장	상방	김길여	허영길	전성환, 정혜숙 외

위의 합동 공연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작품은 <만선>(3막 6장)이다. <만선>은 뱃놈은 물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곰치의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그리고 있다. <만선>은 극협부산지부산하 4개 극단이 합동 공연을 한 작품이다. 전위무대에서 참가한 출연자는 전성환, 이군자, 이병오이다. 전성환이 '성삼' 역을, 이군자는 '아낙 A' 역을, 이병오는 '어부 A' 역을 맡았다.[44]

> 작품 성격으로 보아 되도록 리얼하게 가져가야 할 무대분위기는 일부 인물들의 과장된 동작으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때로는 희극화하고 있다. (…중략…) 특히 드라마의 모체를 이루고 있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 등은 무대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중략…)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공연의 결정적인 흠은 대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45]

44) 『부산일보』, 1965년 9월 4일 5면: 그 외 극단의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극단-이형환(곰치), 김성철(도삼), 김동민(임제순), 권의웅(어부B), 김수연(구포댁) ; 입체극장-안징강(구포댁), 김옥희(무당), 정동희(슬슬이), 장고웅(연철),김규상(범쇠), 홍미경(슬슬이), 최옥순(아낙B) ; 계절극회-방성진(도삼).

45) 『부산일보』, 1965년 9월 11일, 5면.

<만선> 공연에 대한 평은 부정적이다. 작품의 핵심 이미지를 무대 속에서 찾아 볼 수 없고, 배우의 대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들이 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한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부산의 연극 상황은 무대 연출만을 전공으로 하는 연출자가 없고, 연기자도 방송국 성우나 대학생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연에 대해 단지 연기자를 각 단체에서 모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색이 없는 공연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다.[46]

그러나 1960년대 소극장들이 번역극 위주의 공연으로 일관하고 있던 당시 상황[47]을 고려하면, 국내 작가의 작품을 공연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합동 공연한 작품은 모두 국내 작가의 작품이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예총에서 주관하였기 때문에 극장 무대에서 대작인 국내 작가의 작품을 공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제2기: 소극장 69를 통한 전진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방송국의 설립으로 극단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이 스카우트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즉 많은 배우들이 극단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48] 부산에 여러 개의 극단은 있으나 제대로 활동하는 극단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침체된 부산연극에 자극을 주기 위해 김영송의 발의로 전성환(전위무대), 방성진(계절극회), 김행호(작가) 등이 뜻을 모아 '소극장 69'를 만들었다. 소극장 69 는 부산의 연극을 위해 모인, 극단이나 극장 위주가 아닌 활동위주의 모임이었다. 당시 소극장 69의 동인들은 부산을 문화의 불모지로 인식하

46) 『부산일보』, 1965년 9월 4일, 5면.

47) 정호순, 『한국의 소극장과 연극운동』, 연극과 인간, 2002, 82면.

48) 전승환과 인터뷰, 2010년 9월 14일, 전위무대 사무실.

www.kci.go.kr

고, 침체된 부산 연극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였다[49]고 모임의 목적을 밝혔다.

> 소극장 운동은 연극을 부흥하려는 의욕만이 있었을 뿐, 무대 없는 설움에다 관객마저 영화에 뺏겨 좌절된 것이다. 이렇게 이합집산이 심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정된 관객을 대상으로 제작비가 거의 안 드는 '살롱 • 드라마'를 꾸준히 펼쳐 나가려는 것이 '소극장 69'의 취지라고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송(연출가)씨는 말했다.[50]

김영송은 소극장 69를 만든 이유를, 무대도 없고 관객도 없는 현실이지만 일부의 관객들을 위해서 연극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연극을 꾸준히 하기 위해 부산 연극의 발전을 위해 소극장 69를 발족하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예산도,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매주 공연을 하였다.

소극장 69에서 처음 공연한 작품은 <출발>(윤대성 작)이다. 69년 9월 제1회 공연을 남포동 '르네상스' 음악실에서 하였다. 출연자는 전성환, 방성진 두 사람이었다. 어두침침한 좁은 음악실 구석자리를 무대로 하였고, 배경은 검은 막 뿐이었다. 이와 같은 공연환경은 소극장 69만의 현실이 아니라 당시의 부산연극계의 현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려운 공연환경도 소극장 69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그들은 10월에 <용감한 사형수>(홀 워디호 작), 11월에 <갈색머리카락>(김종달 작, 이광천 연출, 김수연, 나일석 출연), 12월에 <'고도'를 기다리며>(전 5막, 사무엘 베케트 작, 김영웅 연출, 김성웅, 방성진, 이종근, 허영길, 유승문(아역) 출연)를 공연하였다. 12월에 공연한 <'고도'를 기다리며>는 공연도중 간간이 실수는 있었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비교적 호연이었다[51]는 평

49) 『부산일보』, 1969년 9월 25일, 5면 참조.
50) 『부산일보』, 1969년 9월 25일, 5면.

을 받는다. 설영(본명은 설상영임)은 소극장 69의 모습을 '연극 부흥이라는 찢어진 깃발을 긍지처럼 앞세운 채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고독한 군상들'[52]이라고 표현하였다. 설영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부산연극의 상황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었다.

소극장 69의 공연은 빈사상태의 부산 극단의 명맥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였다. 작품 선정도 대담하게 이루어졌다. 8회 공연으로 <토끼와 포수>를 선정했다. 출연진은 장운 역에 전성환, 기호 역에 안관영이다. <토끼와 포수>는 5경으로 이루어진 장막극으로 소극장에서 공연하기에는 양적으로 부담감이 큰 작품이다. 그러나 연출을 맡은 김성철이 설명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을 말끔히 정리하여 1시간 20분 분량으로 각색하여 연출하였다.[53] 소극장 69는 소극장에서 공연하기 힘든 대작도 소극장의 환경에 맞추어 공연하였던 것이다.

1970년 5월 공연 작품은 사르트르 작 <벽>이다. <벽>은 김영송 연출, 김행호 각색으로 르네상스 음악실에서 공연하였으며 출연진은 전성환, 김현우, 안관영, 김사강, 권의웅, 장순녀이다.

1970년 10월 공연 작품은 잭 리처드슨의 <교수대의 유머>이다. 출연자는 1부의 사형수 월터 역에 전성환, 창부 루시 역에 김윤숙, 2부에 등장하는 사형집행관의 역에 전성환, 그의 아내 마사 역에 홍숙희, 형무소장 역에 권의웅이다. 이 작품은 사형수와 사형집행인의 생활의 대비를 통하여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추구한 작품이다. 소극장 69는 <교수대의 유머>의 공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공연된 적이 없었던 미국 현대극 작가의 작품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의 현대극이 한국에서 상연된 적이 있지만 리처드슨의 작품이 한국에서 공연된 것

51) 서영국, 「고도를 기다리며, 소극장 69 공연을 보고」, 『부산일보』, 1969년 12월 20일, 5면.
52) 설영, 아쉬웠던 무대」, 『부산일보』, 1969년 12월 23일, 5면.
53) 『부산일보』, 1970년 4월 18일, 5면.

www.kci.go.kr

은 처음이었다.[54]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선택하고 무대에 올리는 것은 연극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의 초연 작품을 무대에 올린 것에서 소극장 69의 연극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소극장 69는 상업성을 무시한 순수 실험극을 공연하였다. 상업극이 아닌 순수 실험극을 공연했다는 사실은 연극에 대한 그들의 열정 또한 순수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소극장 69는 올해 작품의 공연이 모두 상업성을 무시한 순수 실험극을 공연했다는데서 그들의 의욕이 호평을 받아 한국문화예술대상 연극부분 특별상후보(6월, 12월)로까지 지명되었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몇 개 밖에 안 되는 순수한 소극장 운동의 하나로 연극평론지에 소개되기도 했다.[55]

소극장 69는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연극 활동을 펼쳤다. 부산에서 12월에 공연했던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를 가지고 마산에서 공연을 하였다. 1970년 3월 15일 하오 2시 반, 5시, 7시 반 3회에 걸쳐 마산 3・15회관에서 첫 지방 공연을 열었다.[56] 소극장 69는 관객들에게 연극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찾아다니는 공연을 기획한 것이다.

지방 공연에 이어 연극의 이해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1970년 7월과 8월 매주 화요일 하오 6시 미국문화 센터 회의실에서 다양한 주제[57]를 통해 부산의 관객들의 연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극인들의 연극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결과를 가져

54) 『부산일보』, 1970년 10월 15일, 5면.
55) 『부산일보』, 1970년 12월 17일, 5면.
56) 『부산일보』, 1970년 3월 12일, 5면.
57) 『부산일보』, 1970년 7월 10일, 5면: 7월 14일-『소극장과 무대조건』(김행호, 김성환, 김양자), 21일-『시민회관 건립』(정의용, 강이문), 28일 『관객의 참여』(이숙희, 김차웅, 허정희), 8월 4일-『연극의 흐름』(설상영, 김양자), 11일-『베르트・브레히트 론』(김영송, 김차웅), 18일-『유진・오닐 론』(홍기□), 25일-『종합예술로서의 연극』(김성철 등)

온 것이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합동공연이 이루어졌다. 전위무대가 참여한 합동공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기간	공연 장소	작품명	작가	연출가	진용
1970.12.23～24	부일 프레스홀	출발	윤대성	김영송	전성환, 방성진 외
1971.5.20	순회공연	비석	김희장	한수철	전성환 외
1971.5.30	순회공연	용감한 사형수	홀 워디홀	전성환	방성진, 정혜숙 외
1972.6.30～7.5	연극협회부산지부합동공연	흑도	김행호	설 령	전성환, 안관영 외

이 시기에 행해진 합동공연에서 <흑도>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이 소극장 69가 중심이 되어 공연되었다.[58] 부산의 연극단체로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소극장 69뿐이었다.[59] 당시 다른 극단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전위무대가 소극장 69의 중심이 되어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소극장 69가 공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소극장 69의 주축이 된 전위무대가 합동공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설립 이후 꾸준히 연극 공연을 한 소극장 69지만 1년 7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소극장 69가 해체된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의식주의 문제 때문이다.[60] 그러나 소극장 69는 1년에 한두 번 연극 공연이 있을까 말까하던 부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공연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연되지 않았던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관객을 찾아가는 공연과 연극의 이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소극장 69의 활동 시기는 열악한 부산 연극의 환경에서 연극인들이 연극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시기임이 분명하다.

소극장 69의 중심에 전위무대가 있었다. 전성환은 제작과 무대장치 등

58) 허은・김문홍, 앞의 책, 380면.
59) 『부산일보』, 1971년 11월 30일, 5면.
60) 전성환, 앞의 글, 152면.

www.kci.go.kr

전반적으로 전위무대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에 소극장 69의 공연에 전위무대 인맥들이 참가했다고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61]고 한다. 비록 전위무대라는 극단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 시기는 아니지만 많은 공연에 있어서 극단 대표인 전성환과 전위무대의 단원들이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3) 제3기: 새로운 각오로 도약

1973년은 부산 연극인들에게 획기적인 해이다. 1973년 10월 10일 부산시민회관이 개관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시민회관의 개관은 공연장을 갈망하는 무대 예술인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안겨주었다.[62] 그러나 부산시민회관의 개관이 연극인들에게 공연에 적합한 무대를 제공해 준 것은 아니었다. 연극인들이 주로 공연을 하였던 시민회관 소강당은 공연을 위해 필요한 무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무대 안쪽 공간에 분장실과 화장실이 없는 상식 밖의 공연장[63]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연극은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소극장 69의 활동을 마무리 한 전위 무대도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제6회 정기공연을 하였다. 공연 작품은 장 아누이 작 <도적들의 무도회>이며, 연출은 허영길이 맡았다. 공연일은 1974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다(하오 3시와 7시 공연). 출연진은 전성환(규스따브), 전상옥, 이성규, 장미화(레이디 하프), 정해숙(쥬리에뜨), 김옥길, 정미령 등이다. <도적들의 무도회>는 부산에서 처음 공연되었으며, 이 공연은 프랑스 희극 특유의 매끄러움이 아쉬웠으면서도 의욕이 역력히 엿보이는 역작이었다[64]는 평을

61) 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2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62) 김동규, 앞의 책, 86면.
63) 위의 책, 94면.

받는다. 전위무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그들의 의욕이 무대 위에서 표출된 것이다.

이 작품의 출연진의 8할이 대학연극인이거나 신인이었다.

> 허영길씨는 이제 무대도 생겼고 그동안 몇 차례의 연극발표에서 관객의 호응도 얻었으니 힘이 생긴다면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으나 그동안 부산에 많지도 않았던 연기자가 한 둘 떠나가고 후속 신인은 가뭄에 콩 나듯해서 막상 극단을 부활하려니 연기자 동원에 애를 먹는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65]

허영길의 말에서 당시 부산 연극 상황은 부산시민회관의 개관으로 무대는 생겼지만, 공연을 할 만한 연기자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위무대가 <도적들의 무도회> 공연에 있어서 단지 연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캐스트의 8할을 대학연극인이거나 신인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연극협회 지부장이었던 설상영(1972년 당시)은 연기자 기근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학생연극 출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도 못한다고 하였다.[66] 전위 무대에서 대학연극인과 신인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부족한 연기자를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극단의 재기와 함께 신인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7회 정기공연 작품은 박조열 작 <토끼와 포수>이다. <토끼와 포수>는 지난 1966년 부산연극협회 합동순회공연 때 선보였던 작품이다. 1975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하오3시와 7시 30분 허영길 연출로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진은 전성환, 정해숙, 장미화, 이상복, 주용

64) 『부산일보』, 1974년 5월 1일, 5면.
65) 『부산일보』, 1974년 4월 27일, 5면.
66) 『부산일보』, 1972년 6월 17일, 5면 참조.

www.kci.go.kr

욱, 이정갑, 전병관이다. 제8회 정기공연 작품은 J. 리차드슨 작 <교수대의 유머>이다. <교수대의 유머>는 소극장 69에서 공연한 작품이다. 1975년 12월 20일 허영길 연출로 부산미문화원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진은 박정수, 이상복, 전성환이다.

제9회 정기공연은 하유상 작 <도깨비의 우화>를 공연하였다. <도깨비의 우화>는 허영길 연출로 1975년 12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하오 3시와 7시에 공연하였다. <도깨비의 우화>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공연되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중앙에만 머물렀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처음으로 부산에 유치하여 지방연극발전에 앞으로도 계속 뒷받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67] 당시 문예진흥기금의 서울 편중 분배[68]에 대해 지방 예술인들의 반발이 있었고, 1977년에 '부산연극인의 발언'을 통해 문예진흥기금이 침체된 지방 연극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69] 이러한 상황에서 전위무대가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은 꾸준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성환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고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공연 활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지방육성책의 일환으로 문예진흥기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한다.[70]

> 뚜렷한 문제 의식없이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연기자의 미숙은 물론 평범하고 개성 없는 스탭진의 안이성 등이 어떻게 부산의 많은 연극관객수준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71]

67) 『부산일보』, 1975년 12월 30일, 5면.

68) 74년도 진흥원의 연극분야 세출액이 8천5백10만원인데 비해 부산에는 단 한 푼의 지원이 없었고, 75년도에는 총 4천9백60만원이었으나 부산에는 창작극 공연지원금 40만원이 고작이었다. 76년에는 없고 77년에는 2개 단체에 80만원, 78년 없고, 79년에는 50만원해서 부산에서 지원받은 액수는 통틀어 2백20만원이 전부이다(『국제신문』, 1979년 12월 10일 참조).

69) 김동규, 앞의 책, 93면.

70) 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2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무대에 올렸지만 <도깨비의 우화>에 대한 평은 좋지 않았다. 문제의식이 없으며, 연기자의 연기는 미숙하고, 스텝은 안이하게 준비하였다는 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용극장은 고사하고 극단 상용 연습실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 미숙은 어찌 보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연기자와 극단 관계자들의 노력부족을 환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조건이 열악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꾸준히 무대를 열고 공연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전위무대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 공연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10회 공연은 8회에서 공연한 <교수대의 유머>를 허영길 연출로 1976년 2월 26일 밀양 문화원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진은 박정수, 이상복, 전성환이다. 제11회 공연 작품은 포버트 앤더슨 작 <알고 난 뒤의 충격>이다. 1976년 6월 24일과 25일 2회에 걸쳐 부산미국문화센터에서 전성환 연출로 공연하였다. 전위무대는 이 작품을 자체 번역하여 무대에 올렸다.[72] 이 공연에서 이색적이었던 것은 무대가 관객석으로 3백 60도 완전히 둘러싸인 원형무대였다는 것이다. 원형무대는 연극성을 강조하는 비사실주의 연극무대에 적합한 것이었고, 다양한 연극실험을 가능하게 했다.[73] 지금까지의 무대와 달리 원형무대에서 공연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형중은 이번 공연에 대해 오랜만에 잘 다듬어진 단막희극을 보여준 느낌이다[74]고 평했다.

제12회 정기공연 작품은 J. P. 샤르뜨르 작 <벽>이다. <벽>은 소극장 69에서 공연한 작품이다. 1976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허영길 연출로 시민

71) 김배호 아쉬운 문제의식-연극 <도깨비의 우화>를 보고」, 『부산일보』, 1975년 12월 30일, 5면.

72) 『부산일보』, 1976년 12월 17일, 5면.

73) 정호순, 앞의 책, 359면.

74) 강형중, 극적 긴장 없는 웃음의 허망한-전위 무대의 <알고 난 뒤의 충격>」, 『부산일보』, 1976년 6월 29일, 5면.

www.kci.go.kr

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출연진은 이상복, 박정수, 전승환, 계홍열, 전동수, 전성환이다. 제13회 정기공연 작품은 R. 앤드슨 작 <알고 난 뒤의 충격>이다. <알고 난 뒤의 충격>은 11회 정기공연을 한 작품이다. 1976년 7월 28일 전성환 연출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출연진은 정서홍, 이상복, 전성환, 김혜진이다. 11회 공연과 13회 공연을 약 이천 명 정도의 관객이 관람하였다.[75] 이와 같은 성과는 부산에 연극관객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1976년부터 시작된 부산연극 변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

제14회 정기공연 작품은 지인 커 작 <내사랑 마리>이다. 1977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근섭 연출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출연진은 안광영, 전성환, 박정수, 이상복, 박숙, 김철숙, 정서홍, 이창희, 전승환이다. 전위 무대는 15주년을 맞는 제15회 정기공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제15회 정기공연 작품은 오영진 작 <맹진사댁 경사>이다. 이 작품을 허영길 연출로 1977년 11월 20에서 23일까지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진은 진사 역에 전성환, 참봉 역에 조남수, 삼돌 역에 안관영, 길보 역에 이창희, 갑분이 역에 조유진이다.

> 이번 전위 무대는 20여 명의 많은 배역을 극단자체 내에서 해결 했을 뿐 아니라 화려한 무대장치와 경제적인 많은 투자로 대극장의 진출은 부산연극의 저력을 과시한 또 하나의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76]

소극장의 무대에서 대극장의 무대로 진출한 것이다. 많은 배역과 무대장치 그리고 경제적인 투자를 전위 무대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한 것이다.

75) 76년 전위무대의 <알고 난 뒤의 충격> 공연에 2천명대의 관객이 들었으며, 극단 현장의 <일요일의 불청객>에 2천5백명의 관객이 들었다(『부산일보』, 1977년 3월 5일, 5면).

76) 강형중, 「대극장 진출로 저력과시-'전위 무대'의 <맹진사댁>」, 『부산일보』, 1977년 11월 22일, 5면.

보다 많은 관객과의 만남을 위해 대극장 무대에 진출하게 된 것은 전위무대가 성장과 발전을 한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제16회 정기공연 작품은 윤대성 작 <출발>, <너도 먹고 물러나라>이다. 허영길 연출로 1978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진은 박판수 역에 김의섭, 모조리네 역에 박숙, 사나이 사설광대 역에 김경화, 승무원 역에 이상복, 마리아 역에 유경자이다. 이 공연에서 전위무대는 원형무대의 공연에 이어 또 다시 새로운 시도를 기획한다. 충분하지 못한 연습량, 연기자들의 재질부족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퍼토리 시스템[77]을 도입한 것이다.

레퍼토리 시스템은 유명배우의 인기로 관객을 이끄는 스타시스템과는 달리 주역에서 단역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앙상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며, 겉으로의 전시보다 알찬 내면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한다.[78] 전위무대가 레퍼토리 시스템 공연을 강조하는 것은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예술을, 완전에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며, 향토 문화권의 일각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한 전진이라고 천명하고 있다.[79]

1978년 대한민국연극제[80]에 초청을 받았던 전위무대는 중앙극단들과 기량을 겨루어 보려고 의욕에 찬 연습과 준비를 했으나 모호한 작품심사 기준에 의해 작품이 탈락하면서 모처럼의 기회가 무산된다.[81] 문예진흥원이 선정한 10개 극단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극단[82]들이다. 비

77) 『부산연극사』에서는 이 공연을 극단 '레퍼토리시스템'의 창단 공연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연 당시의 레퍼토리시스템은 독자적인 극단이라 볼 수 없다. 극단 대표가 전성환인 레퍼토리시스템은 전위무대의 산하기관으로서 존재하였고, 3회 공연부터 독자적인 극단으로 분리되었다(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월 26일 좋은 강안병원 1층).

78) 『전위무대 제16회 레파토리시스템』 공연 팜플릿, 1978년 5월 4~8일.

79) 전성환, 「새로운 기초 작업」, 『전위무대 제16회 레파토리시스템』, 1978년 5월 4~8일.

80) 1977년 번역극 남발이 심화되자 정부당국이 창작극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대한민국연극제이다(유민영, 앞의 책, 466~467면 참조).

81) 『부산일보』, 1978년 9월 8일, 5면.

82) 참가 극단은 가교, 산하, 민예, 민중, 사계, 성좌, 에저또, 여인극장, 제작극회 등이다

www.kci.go.kr

록 작품이 탈락되어 연극제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위무대의 연극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위무대는 탈락한 것에 실망하기보다는 다음 작품 공연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했다.

제17회 정기공연 작품은 김행호 작 <흑도>이다. 1978년 12월 30일부터 카페 떼아뜨르에서 전승환 연출로 공연하였다. 출연자는 전성환, 전동수, 조남수이다.

> 지난 1년(1978년) 동안 부산에서 총 31편의 연극이 공연됐었다. 이것은 1977년에 비해 공연편수가 8편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약 31편의 공연작품 중 50%가 넘는 16편이 부산 극단에 의해서 공연됐다는 것이다. 지난 70년대에 들어서 부산에 연극 붐이 일기 시작한 이래 서울극단들의 극성스런 원정공연으로 항상 열세에 몰려있던 부산극단들이 비로소 서울극단을 누르고 공연 편 수 면에서 부산의 주인행세를 했었다는 점에서 78년은 기록을 세우기도 한 해였다. (…중략…) 서양연극에 대한 연구와 도입에 쏠려 창작극의 빈곤을 초래한 것이 한국연극 전체의 병적 현상이지만 부산의 경우는 너무나 재공연물이 늘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이런 점에서 '전위무대'가 창작극 <흑도>를, 극단 '한새벌'이 창작극 <누구세요?>를 공연한 것은 올해 부산극단의 순수성과 의욕을 보여준 공연이었다.[83]

1978년은 부산 극단들의 공연수가 증가하였다. 78년 5회 공연을 한[84]

(유민영, 앞의 책, 467면).

83) 『부산일보』, 1978년 12월 26일, 5면.

84) 1978년 1월 12일에서 14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나사랑 연출로 <딸들 자유연애를 구가하다>와 1978년 4월 8일에서 10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나사랑 연출로 <버스 스톱>을 공연하였으나 정기 공연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 전위무대산하 극예술연구회의 공연이기 때문이다. 극예술연구회는 부산대학교 연극동아리 모임으로 전위무대에서 연극지도를 받은 단체이다(전성환과 인터뷰, 2010년 10일 26일, 좋은 강안 병원 1층).

전위무대가 부산 연극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연의 횟수가 많은 것이, 부산 연극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억지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 극단들의 부산 공연으로 인해 부산 극단들이 열세에 몰린 상황을 감안하면, 공연의 횟수 역시 공연의 중요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선정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고 난 뒤의 충격>, <벽> 등 번역극을 재공연하기도 했지만, 번역극의 재공연만 한 것이 아니라 창작극 <흑도>를 공연하였다. 김동규는 전위무대의 공연에 대해 작품의 선택 폭이 좁아 재공연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방 작가의 작품을 공연하는 장점도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85]

이 시기에는 극단 한새벌과 충열사 준공기념공연에서 합동공연을 하였다.

기간	공연 장소	작품명	작가	연출가	진용
1973.12.18～21	시민회관소극장	조급한 마음	존 패드릭	김영송	전성환, 정해숙, 김완홍 외
1978.9.29～30	시민회관 대강당	아! 동래성	박두석	전성환	

<조급한 마음> 공연은 완벽한 장치와 빈틈없는 대소도구 • 출연자 간의 균형 등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86]는 평을 받았다. 부산 시민회관이 개관되고 공연한 <조급한 마음>이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연극의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무대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하기 어려웠지만 시민회관의 개관으로 무대가 마련되자 부산 연극인들이 열정을 다하여 공연하였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아! 동래성>은 7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동래성>은 인진왜란 당

85) 김동규, 앞의 책, 98면.

86) 『부산일보』, 1973년 10월 21일, 5면.

www.kci.go.kr

시 동래부사 송상헌과 동래 군민들이 왜적에 대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공연을 계기로 부산 무대예술제라는 관 주도 행사가 생기게 된다.[87]

이렇게 전위무대는 직간접적으로 부산의 무대예술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고, 부산의 공연예술을 이끄는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까지를 전위무대의 1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주로 전위무대가 지역적 · 공연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반은 부산의 지역 연극의 기반을 되기도 했다. 전위무대의 출범과 행로는 곧 부산 지역연극의 본격적인 행보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5. 전위무대의 연극사적 의의

전위무대는 1963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극단이다. 1960년대에 들어 부산에는 많은 극단들이 생겨나면서 부산 연극계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듯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극단들이 한두 작품 공연 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전위무대는 창단 이후 꾸준히 연극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공연을 계속하였다. 전위무대의 연극에 대한 열정은 공연 작품 수에서도 나타난다. 타 극단과 달리 60년대에 5회의 정기공연을 가졌으며 합동공연에도 꾸준히 참석하였다.

1960년대 창단된 부산의 극단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게 되자 김영송이 발의하여 소극장 69를 결성하게 된다. 부산의 열악한 공연환경 속에서도 소극장 69는 한국에서 공연되지 않았던 미국 현대극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공연하고, 순수 실험극을 공연하는 등 순수한 소극장 운동을

87) 허은 · 김문홍, 앞의 책, 383면.

펼쳤다. 소극장 69의 중심에 전위무대가 있었다. 소극장 69의 공연작품 제작, 무대장치 등을 맡은 것도 전위무대였다. 당시 실제로 극단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던 극단은 전위무대였고, 연극적인 힘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극단도 전위무대였기 때문에 소극장 69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부산 연극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산 시민회관의 개관이다. 시민회관의 개관으로 인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게 된 연극계는 새로운 각오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회관이 개관되기 전까지 부산의 극단은 1963년 7월에 창단된 극단 전위무대(전성환), 1970년 9월 창단된 드라마센터 부산극회(천재동), 1973년 3월에 창단한 예술동호회 딜레땅뜨(이윤택) 등 세 극단에 불과했다.[88] 부산연극의 중심에 있었던 극단을 살펴보면 1960년대는 계절극회, 샛불극회, 입체극장, 전위무대 등이며, 1970년대는 전위무대, 원형극장, 현장 등의 극단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부산연극의 중심에 전위무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회관 개관으로 전위무대도 다시 활발하게 공연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공연된 적이 없었던 <도적들의 무도회>를 공연한 것을 시작으로 전위무대는 끊임없는 공연 활동을 펼친다. 이러한 활동으로 전위무대는 부산극단 최초로 문예진흥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전위무대는 자체번역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며, 원형무대로 무대의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15회 정기공연에서는 소극장의 무대에서 벗어나 대극장의 무대로 진출한다. 또한 레퍼토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여 완성된 작품을 공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작품 선택 폭이 좁아 때로는 재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방 작가의 작품을 공연하여 지방작가들의 작품 활동의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88) 허은 · 김문홍, 앞의 책, 379면.

www.kci.go.kr

1980년대에 자체 소극장을 가진 극단들도 일 년에 3~4편 정도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그 외의 극단은 부산연극제와 무대예술제에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전위무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였고, 현재에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는 극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극단 전위무대는 부산 연극 발전의 중심에 있는 극단이라 할 수 있다.

전위무대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그 내용 면에서도 1960~1970년대 한국연극 특히 지역연극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극단이었다. 극장이 없어 연극 공연에 차질을 빚었다거나, 중앙의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공연 인력이 부족하여 합동 공연이나 연계 공연을 펼쳐야 했던 상황에 처했던 것이 이를 대변한다. 또한 1단계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부족한 인적 자원이 분할되면서 극단이 분열하고 연극인들이 이합집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전위무대는 전체 시기의 1/3 정도의 시기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연극사의 중요한 관찰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전위무대의 역사는 곧 부산 연극의 초창기 모습이 지닌 한계와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부산일보』, 1963~1978.
『국제신문』, 1979.
『전위무대 제16회 레퍼토리시스템』 공연 팜플릿.
전승환과 인터뷰, 2010.9.14.
전성환과 인터뷰, 2010.10.26.

박두석, <아! 동래성>.
박조열, <토끼와 포수>.
오영진, <맹진사댁 경사>.
로버트 앤더슨, <알고 난 뒤의 충격>.
샤르뜨르, <벽>.
잭 C. 리쳐드슨, <교수대의 유우머>.
지인 커, <내 사랑 마리>.
호워디 홀, <용감한 사형수>.

2. 저서 및 논문

김동규, 『부산연극사』, 예니, 1997.
서연호, 『한국연극사-근대편』, 연극과 인간, 2003.
_____, 『한국연극사-현대편』, 연극과 인간, 2005.
유민영, 『한국연극운동사』, 태학사, 2001.
전성환, 「시대에 따른 우리연극의 흐름」, 『백경』 22권, 수산대학교, 1983.
정호순, 『한국의 소극장과 연극운동』, 연극과 인간, 2002.
_____, 『한국 희곡과 연극운동』, 연극과 인간, 2003.
차범석, 『한국 소극장 연극사』, 연극과 인간, 2005.
한국연극협회, 『지역연극사 한국현대연극 100년』, 연극과 인간, 2008.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편, 『부산연극사-소극장사 1963~2009』, 도서출판 해성, 2009.
Oscar G. Brockett, 김윤철 역, 『연극개론』, HS MEDIA, 2009.

www.kci.go.kr

접 수 일 : 2011년 3월 1일
심사기간 : 2011년 3월 7일~3월 19일
게재결정 : 2011년 3월 19일

Abstract

A Study of 'Jeonwi Mudae', the local theater company

Park Kyoungsun

Founded in 1963. 'Jeonwi Mudae' is the oldest drama company among other drama companies which are producing now in Pusan. When it was founded, the situation of the theater in Pusan was that there wasn't any stages to play and any income from drama playing. But even in this situation, the members of 'Jeonwi Mudae'founded the drama company resolving to play a drama like a drama.

In this research, the history of performance of 'Jeonwi Mudae' from 1963 to1978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rer are the time when the theater played under the name 'Jeonwi Mudae'. the time of 'Soguekjang 69' when the drama actors of Pusan joined and played, and the time they played under the name 'Jeonwi Mudae'again along with the opening of the Pusan Civic Center. The drama actors of Pusan joined in 'Soguejang 69' but 'Jeonwi Mudae'was very active with 'Soguekjang 69' as the central figure.

Evern though almost of the theater companies was broken up after just once or twice performances, 'Jeonwi Mudae' had worked steadily and it is working actively now too.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drama company in Pusan, it played a drama by Art and Literature Promotion Foundation in 1975. It made the first performance that never had been played in Pusan before and also it played drama in translation by itself. It gave variety to stage playing in an amphitheater and it played in a grand hall too. We can say it is in the center of development of the Pusan theater because it has tried the variety ways again and again.

Key words : Jeonwi Mudae, Soguekjang 69, drama in Pusan. 1960's. 1970's, Art and Literature Promotion Foundation

www.kci.go.kr